

日本所在 佛教 教藏文獻의 書誌調査

A Bibliographical Research of Gyojang in Japan

남 권 희 (Nam, Kwon 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律書의 註釋書 |
| 2. 經書의 註釋書 | 5. 맺음말 |
| 3. 論書의 註釋書 | <참고문헌> |

< 초 목 >

본 연구는 2015년 고려 제종교장 학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 한·중·일 소재의 教藏 문헌에 대한 서지조사 중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교장을 經·律·論書의 註釋書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교장은 총 6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註釋書별로 살펴보면 經書 주석서 31종, 論書 주석서 16종, 律書 주석서 3종으로 구분되며, 目錄類인 『新編諸宗教藏總錄』 卷2, 3이 있다.

둘째, 간행 및 인출 시기별로 살펴보면 平安朝(794-1185) 1건, 11c 1건, 12c 2건, 13c-15c 각 1건, 16c 2건, 17c 28건, 18c 9건, 19c 추정 1건, 20c초 추정 2건, 간행연도 미상 9건, 15c板 後印 추정 1건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간행 판본별로는 木板本 46건, 筆寫本 4건이다. 목판본 중에는 春日版인 『成喩識論了義燈』 卷2가 1건 포함되어 있다.

要語: 教藏, 경서, 율서, 논서, 주석서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6년 8월 31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Gyojang research fulfill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in 2015. So in this study we tried to bibliographically investigate all the Gyojang remained in Japan. The quantity, the status and the bibliographic features of them were gathered and organized.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61 volume of Gyojang were remained, and the bibliographic features as follows ;

1. In terms of theme, Geungseo that is in the category of Buddhist Sutra remains 31 volumes, Nonseo was 16 volumes, Yeolseo 3 volumes and also the catalog of Gyojang which called *Shinpyenjejonggyojangchongrok* vol.2 and vol.3 was contained to the list.
2. In the times of engraving and printing periods, 1 volume was in 794-1185 so called Peungan period, 1 volume in 11th century, 2 volumes in 12th century, 13th-15th century was made 1 volume respectively, 2 volumes in 16th century, 28 volumes in 17th century, 9 volumes in 18th century. Also 1 volume is estimated about 19th century, 2 volumes is estimated about 20th century and 9 volumes is unknown the printing time. 1 volume was engraved in 15th century but printed in later and so forth.
3. In the methods of publishing, 46 volumes were engraved in woodblocks, 11 volumes were transcribed and wooden type was 4 volumes. In the woodblock books there was *Sungyusikronyouideung* which was regarded as 'Kasganban'.

Key words: Gyojang, Gyeongseo, Yeolseo, Nonseo, Annotation books

1. 머리말

이 연구는 2015년 고려 세종교장 학술조사 사업으로 진행된 의천이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韓國·中國·日本 소재의 敎藏에 대한 서지 조사 중에서 한국 소재 교장 문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본에 소장된 교장 문헌을 經·律·論書의 註釋書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¹⁾

먼저 전체 조사된 총 110건의 교장 문헌 가운데에서 일본 소재의 經書 주석서로는 33건이 있으며, 주석서별로 구분해 보면 『大方廣佛華嚴經』 3건, 『妙法蓮華經』 11건, 『梵網經』 7건, 『圓覺經』 1건, 『佛說盂蘭盆經』 1건,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4건, 그 외 주석서 6건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주석서에는 法藏의 『華嚴一乘敎分記』, 『華嚴經問答』과 澄觀의 『貞元新譯華嚴經疏』가 있으며, 『묘법연화경』 주석서로는 惠詳의 『弘贊法華傳』과 『法華玄義十不二門』, 處謙의 『法華玄記十不二門顯妙』, 仁岳의 『十不二門文心解』, 吉藏의 『法華玄論』, 『法華遊意』, 『法華經義疏』, 惠沼의 『法華經決』, 必昇校證·徐行善科註의 『科註妙法蓮華經』, 『註妙法蓮華經』이 있다. 『범망경』 주석서는 元曉의 『菩薩戒本持犯要記』, 太賢의 『菩薩戒本宗要』, 『梵網經古迹記』, 『古迹記科文』, 『古迹記註釋』과 勝莊의 『梵剛經述記』, 『法網經菩薩戒本抄』, 『法網經疏』가 있으며, 『원각경』 주석서로는 宗密的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 있다. 또한 『불설우란분경』 주석서인 重密的 『盂蘭盆經疏新記』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의 주석서인 太賢의 『本願藥師經古迹』이 있다. 이외에도 합철된 『無量壽經宗要』·『佛說阿彌陀經疏』와 仲希의 『般若心經疏顯正記』가 있으며, 필사본인 圓測의 『解深密經疏』와 『仁王經疏』, 吉藏의 『涅槃經遊意』, 僧肇의 『註維摩詰經』이 있다.

일본 소재 論書의 주석서로는 총 22건이 확인되며, 주석서별로 보면 『大乘起信論』 9건, 『順正理論』 6건, 『瑜伽師地論』 3건, 그 외 주석서 4건이 있다. 『대승

1) 『서지학연구』 다음 호인 제68집에는 중국에 소재한 敎藏 문헌의 書誌 조사 연구에 대해 수록할 예정이다.

기신론』의 주석서에는 원효의 『大乘起信論別記』, 『大乘起信論疏』와 惠遠의 『大乘起信論義疏』, 曇延의 『大乘起信論義疏』가 있다. 그리고 『순정리론』의 주석서로는 湛然的 『止觀大意』, 灌頂의 『天台八教大意』, 諦觀의 『天台四教儀』, 知顓의 『四念處』, 『四教儀』와 승조의 『寶藏論』이 있다. 또한 『유가사지론』의 주석서에는 窺基의 『瑜伽師地論略纂』과 遁倫의 『瑜伽論記』가 있다. 이 외에도 慧沼의 『成唯識論了義燈』, 길장의 『法華論疏』, 智圓의 『金剛錍顯性錄』과 『金剛錍文句科』가 있다.

律書의 주석서는 『四分律』 1건, 『十誦律』 2건이 있으며, 『사분율』 주석서인 道宣의 『四分律含注戒本疏』와 『십송율』의 주석서인 元照의 『佛制比丘六物圖』, 道선의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가 있다.

한편 目錄類로는 京都博物館에 임시 보관 중인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필사본)을 조사하였다.

2. 經書의 註釋書

2.1 『大方廣佛華嚴經』의 註釋書

2.1.1 法藏의 『華嚴一乘教分記』

天理大 소장본, 3卷 3帖 (卷上, 中, 下)

이 책은 法藏이撰한 『華嚴一乘教分記』 卷上, 『華嚴一乘教分記』 卷中, 『華嚴經中一乘五教分齊義』 卷下の 3卷(3帖)으로 된 木板本이다. 弘安 6年(1283) 일본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이 卷末기록에 보인다. 장정은 折帖裝이며, 행자수는 7行 20字, 책의 크기는 27.5×13.5cm이다. 판심제는 없고, 표지서명은 ‘華嚴一乘教分記 卷上, 卷中, 卷下’로 되어있다. 卷下の 卷末刊記는 다음과 같다.

誌語：夫法界宏高圓宗[充]邈僅[願]法席剩企弘通 /
仍勸有緣諸人逐開一部模板庶幾遐方終古 / 流演傳布而已
刊記：弘安六年癸未(1283)九月八日四門禪尒謹誌

2.1.2 法藏의 『華嚴經問答』

大正大 소장본, 2卷 1冊

이 책은 上·下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沙門釋法藏 撰’이라는 저자표기가 卷下에 나타나 있다. 1701년(元祿 14 辛巳)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6.2×18.4cm이고 판심제와 墨書된 제침제는 ‘華嚴經問答’이다. 卷末의 刊記는 ‘元祿14年 辛巳(1701)六月穀日壽于梓 平安城東六條下珠數屋町丁子屋九郎右兵衛門’이다.

2.1.3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

天理大 소장본, 영본 1冊 (卷115)

이 책은 ‘卷115’의 영본 1冊으로 木板本이다. 마이크로필름 22張(1張 19行) 분량으로 남아 있으며, 앞표지에 墨書로 ‘宋槧華嚴經’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宋版으로 추정된다.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一百一十五’이고 그 아래 小字雙行으로 ‘入第七十六經卷末’이라고 되어 있다. 장정은 折帖裝(1面 4行)이며, 1行 15字(주: 1行 20字)이고, 책의 크기는 29.1×10.7cm이다. 뒷표지에는 ‘養素齋珍藏’의 墨書가 있다.

2.1.4 澄觀의 『貞元新譯華嚴經疏』

東大寺 소장본, 영본 9冊 (卷1-10, 卷8 缺)

이 책은 澄觀이 기술한 『貞元新譯華嚴經疏』 영본 9冊의 筆寫本이다. 卷第2, 3, 4의 卷末에 高麗 獻宗 元年(1095)에 大興王寺에서 雕造한 판본을 가지고

1277년(建治 3), 1278년(弘安 元年) 일본 高山寺 金剛定院에서 필사작업을 마쳤다는 墨書 기록이 있다. 장정은 蝴蝶裝(1張 2面)이며, 행자수는 8行 15字(押界), 책의 크기는 25.5×15.9cm이다. 표지는 회청색염지인데, 缺落된 부분이 일부 있으며, 蟲毀가 심하다. 卷末의 저본 간기와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卷第1 (筆寫記) : 嘉祿三季[1227]潤三月廿八日午時許於西山高山寺西[] / 書寫[]了 執筆淨弁

卷第2 :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鉅宋紹興□□乙丑歲四月□□
拈揮許將賢首花嚴一宗教觀文字編入大藏流行
建治三年(1277)五月十七日於西山高山寺金剛定院以高麗國本書寫畢
円性 生年卅三 同月廿三日於開田院相御□所以同本校合畢

卷第3 : 寫本云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弘安元年(1278)三月二十一日於開網殿相御所以高麗本奉寫畢 円性
同本以校合了

卷第4 :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弘安元年(1278)五月十五日於高山寺金剛定院以高麗國大興王寺本
敬奉寫畢 花嚴寺末學沙門円性

2.1.5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東大寺 소장본, 20卷 40冊 (軸)

東大寺 소장본은 木板本으로 高麗 宣宗 11年(1094)에서 高麗 肅宗 2年(1097)까지 大興王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장정은 卷軸裝이며, 행자수는 30行 20字(卷1下, 4下的 경우처럼 1張이 29行 20字도 있음), 軸의 크기(길이×지름)는 대략 32.0×0.8cm이며 좌우로 가늘어지는 목축의 양단에 옷칠한 부분이 1.8cm 정도이다. 卷末刊記에는 ‘大安, 壽昌’의 遼나라의 年號를 사용하고 있으며, 卷末 墨書기록은 ‘東大寺普門院常住’께 奉寄進한다는 施主處만 略記한 경우, 시주처 略記에 시주자 正筭과 시주년 文明을 기록하여 시주사항을 밝힌 경우, 시주사항에 宗性的 독서기록을 한 경우와 시주사항에 후대 輿書를 기록한 乘門覺西를 명시한

경우, 그리고 宗性的 독서기록만을 쓴 내용으로 대략 5가지 서술형식이 보인다. 각 卷의 앞표지 裏面 墨書와 앞표지 내 籤紙의 墨書 기록, 卷末의 刊記와 墨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卷1上

앞표지裏面 墨書 : 卷第一上 奧書云/ 奉寄進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4下

앞표지內 籤紙의 墨書 : 卷第四下奧書云

앞표지裏面 墨書 : [東大寺/ 普門院/ 常住也]

卷末刊記 : 大安十年甲戌歲(1094)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5上

卷末刊記 : 大安十年甲戌歲(1094)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5下

앞표지內 籤紙의 墨書 : 卷第五下 奧書云

卷末刊記 : 大安十年甲戌歲(1094)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奉寄進/ 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6上

앞표지內 籤紙의 墨書 : 卷第六上 奧書云

卷末刊記 :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6下

卷末刊記 :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文永六年己巳(1269)七月二十六日申時於東大寺尊勝院講摩堂南班/
新學問所合疏二下加一見了爲生生也也值遇華嚴教法也/
權僧正宗性年齡六十八夏菟五十六

卷7上

卷末刊記 :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 : 文永六年己巳(1269)七月十九日申時於東大寺尊勝院中堂正面加一見了/
權僧正宗性

卷7下

卷末墨書：文永八年辛未(1271)十一月二十六日午時於東大寺知足院草庵合疏一見了權僧正宗性

卷8上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文永九年壬申(1272)二月十九日亥時於嵯峨釋迦堂西大門之北邊[禱]願房住房借寄/ 梅尾之本合經并疏加一見了依法皇御事同去九日寄宿此房之間/ 爲月來三月二日[]始行三十講所引見之也前權僧正宗性/ 嘉禎四年(1525)三月晦日未時於東大寺中院奉讀之畢 沙門宗性

卷8下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東大寺普門院常住/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正算奧書云 嘉禎四年(1525)六月十八日巳時於東大寺中院奉讀之了 沙門宗性

卷9上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奉施入施主大法師 正算/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嘉禎四年(1525)七月二十六日午時於東大寺中院奉讀之畢沙門宗性

卷9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九下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

卷10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南都東大寺普門院常住

卷10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南都東大寺普門院常住

卷11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一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正筭/ 奧書筆者乘門覺西

卷11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一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普門院常住

卷12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二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

卷12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二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 正筭

卷13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三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13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三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文明十二稔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 正筭

卷14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四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普門院常住也

卷14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四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 正算

卷15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五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彫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正算/
文明十二年庚子(1480)五月十日/ 奧書筆者乘門覺西

卷15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五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文明十二稔庚子(1480)五月十日/
施主大法師 正算

卷16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六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普門院常住施主大法師 正算

卷16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六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普門院常住也

卷17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七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算

卷17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建長元年(1249)四月二十二日午時於東大寺尊勝院/
中堂奉讀之畢權大僧都宗性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也

卷18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八上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 普門院常住/ 奉寄進 施主大法師 正筭

卷18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八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也/ 施主大法師 正筭

卷19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九上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也

卷19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九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20上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二十上 奧書云

墨書 - 奉寄進東大寺普門院常住奉寄施主大法師 正筭 權大僧都宗性

貞永元年十一月七日戌時於笠置寺福成院房奉讀之畢/

但自卷初至十住知識去年於本寺奉讀之畢/ 華嚴宗末學大法師 宗性

卷末刊記：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奉寄進/ 東大寺普門院常住/ 施主大法師 正筭

卷20下

앞표지內 簽紙의 墨書：卷第十九下 奧書云

卷末刊記：壽昌三年丁丑歲(1097)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卷末墨書：東大寺普門院常住也/ 施主大法師 正筭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고려와 일본과의 문헌 교류는 현존 자료와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판본과 사본 등으로 폭 넓게 이루어졌으며, 또 고려에서 간행된 『華嚴經隨疏演義鈔』는 1103년 2월 일본의 播磨國 性海寺에서도 필사되었다. 현재 奈良의 東大寺에 高麗 敎藏의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그 필사본의 저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2 『妙法蓮華經』의 註釋書

2.2.1 『弘贊法華傳』

東大寺 소장본, 10卷 2冊

이 책은 惠詳이 撰한 것으로 10卷 2冊의 필사본이다. 1120년에 일본 大宰府에서 俊源法師가 宋의 蘇景이 고려로부터 가져온 판본에 의거해서 필사하였던 기록이 卷末에 나타난다. ‘지금 해동에서 비록 초본을 얻을 수 있다하나 세월은 오래되고 기록에 오류가 많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불민하나 시비를 바로잡아 교정하여 널리 유통하고자 하여 조판을 하니 版闕하는 선비들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 깨우칠만한 식견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는 일본 天慶 5年(1115)의 內帝釋院 明度殿의 기록도 있다. 표지서명은 ‘弘贊法華傳 第一 複二三四五’라 되어 있으며, 粘葉裝式 摺本장정에 행자수는 7行 19字에 계선은 押界되었으며, 책의 크기는 27.4×15.9cm이다. 10권의 卷末기록은 다음과 같다.

卷末 기록 : 弘贊法華傳者 始自東晉終乎李唐 凡學法花得/
其靈應者 備載於此斯可謂裨替一大辜之因緣使/
期不墜干地者歟然今海東唯得草本年祀逾遠筆/
誤頗多鑽仰之徒病其訛升余雖不敏讎校是非/
欲廣流通因以雕板庶幾板闕之士開示悟入佛之知/
見者也 時 天慶五年(1115) 藏在乙未季春月十七日 於內帝/
釋院 明度殿記/
海東高麗國義龍山弘化寺住持 究理智炤淨光處/
中孔石法印 僧統賜紫沙門 德緣勘校父林郎司/
宰宰兼同正 李唐翼書/ 一校了
大日本國保安元年(1120)七月八日於大宰府勸俊源/
法師書寫畢 宋人蕪景自高麗國奉渡聖/
教之中有此法花傳 仍爲[]多本所之書然也/
羊僧充拊記之
此書本奧在此日記

2.2.2 『法華玄義十不二門』

東洋大 소장본, 不分卷 1冊

이 책은 湛然이 저술한 것이며, 1647년에 일본의 庄右衛門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不分卷 1冊이다. 관심제는 ‘不二’로 되어 있으며, 본문의 구성은 상부에 科文이 있고, 하부에 본문이 있는 형태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8行 13字이며 刊記는 ‘正保四丁亥年(1647)七月吉日 寺田丁三條上町 庄右衛門’이다.

2.2.3 『法華玄記十不二門顯妙』

龍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冊

이 책은 處謙(1011-1075)이 저술한 것이며, 1657년에 일본의 長谷川市郎兵衛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不分卷 1冊이다. 관심제는 ‘十不二門顯妙’이고, 書根題는 ‘顯妙’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6.1×17.8cm이다. 권말의 간기는 ‘明曆三年(1657)中冬吉日 長谷川市郎兵衛 開板’이다.

2.2.4 『十不二門文心解』

東洋大 소장본, 不分卷 1冊 (1冊 2面)

이 책은 仁岳이 저술한 것이며, 不分卷 1冊의 木活字本으로 간행년대는 未詳이다. 관심제는 ‘文心’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十不二門文心解’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이다.

2.2.5 『法華玄論』

龍谷大 소장본, 10卷 6冊 (條目 1冊 포함)

이 책은 隋代 吉藏이 저술한 것이며, 1683년에 中野五郎左衛門에서 간행한

木板本이다. 第1冊은 ‘法華玄論標條’가 科文형식으로 도표화한 標目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2冊-6冊까지는 卷1-10의 본문이 전개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6.9×18.8cm이며, 표지는 黃紙에 흰색 실로綴하였다. 卷6의 卷末刊記는 ‘天和三年(1683)龍集癸亥孟夏吉長 中野五郎 左衛門 刊行’이다.

2.2.6 『法華遊意』

龍谷大 소장본, 2卷 2冊 (卷上, 下)

이 책은 吉藏의 저술로 1691년에 일본의 村上平樂寺에서 重刊한 木板本이다. ‘一乘의 教理를 유포시키고 三論宗의 뜻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遊意 一卷을 공경히 간행하니 중생들이 모두 크게 발심하여 三界의 무리들이 다 깨달음에 이르고자 함이다.’고 하는 1252년 東大寺 戒壇院沙門 聖守의 글이 卷末에 실려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12字, 책의 크기는 20.4×14.4cm이며, 표지는 黃紙이고 흰색 실로綴하였다. 卷末기록과 刊記는 다음과 같다.

卷末識文：廣令流布一乘教理普爲弘通三論宗義敬開/
一卷遊意欲傳諸方道俗願以此功德久護持/
正法六趣衆生皆發大心三界羣類悉到覺岸/
焉于時建長年壬子(1252)十月七日/東大寺 戒壇院 沙門 聖守謹題/
木記：元祿四辛未(1691)歲次月中浣日 村上平樂寺 重梓

2.2.7 『法華經義疏』

龍谷大 소장본, 12卷 10冊 (卷1-12)

이 책은 吉藏이 저술한 것으로 『法華義疏』라고도 하는데, 吉藏이 三論宗의 立場에서 法華經을 注釋한 것이다. 1699년에 일본의 錢室庄兵衛에서 간행한 木板本으로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字이며, 3冊과 4冊의 卷末기록과 10冊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卷末기록 : 永仁甲午妙法書日因中觀[穹]師灌力化同信法華義/
疏之第三庶幾此丘尼正禪[捲]氏娘函儀乘此寶車/
直到淨刹乃至四思三有利潤無窮而已/ 都幹綠沙門宰慶謹 (3册)

永仁甲午仲[呂祈]三爲造板華功先妣[]也爰沙弥道尊水叔者未然
十三忌景浮滿風樹悲幾許千万愁緒在誰爲呼擔却石不磷之恩遇浮木未朽
之/ 幸仍刊義疏第四盛流行無窮乃至有頂阿鼻濟度/無邊而已/
都幹綠沙門素慶謹誌 (4册)

刊記(10册) : 元祿十二己卯(1699)秋七月吉祥日皇都書林堀川通綾小路下町錢室庄
兵衛 藏版

2.2.8 『法華經決』

龍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册

이 책의 原題는 『法華義決』로 惠沼의 저술이다. 不分卷 1册의 목판본으로 卷末에 刊記가 없어 간사년은 명확하지 않으나, 1737년에 惠沼의 『法花義決』에서 爛脫된 부분을 필사하여 메우고서 보관한다는 기록이 卷末 墨書에 보인다. 行자수는 7~8行 21字(原版本의 行數는 1版이 30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印出 후 15행으로 나누어 제분한 관계로 行數는 張에 따라 7/8行, 혹은 8/7行이 됨), 책의 크기는 27.2×18.6cm이다. 권말의 목서로 ‘元文二年(1737)丁巳十日四月日 惠沼法花義決爛脫 寫加了 [墨筆로 지운 部分] 藏收之畢’이 있다.

2.2.9 『科註妙法蓮華經』

① 京都博物館 소장본, 8卷 10册 (卷1上, 1下, 2上, 2下, 卷3-8)

② 京都博物館 소장본, 7卷 8册 (卷1上-下, 卷2-7)

①은 元代 徐行善이 科註한 것을 必昇이 校證하여 1676년에 일본의 中村五兵衛에서 간행한 木板本이다. 信人 習善이 시주하여 刊行하였다. ‘必昇이 校證하고 德謙, 可明, 無住, 如日, 善入, 文桂, 道全이 重校하였으니 未來世에는 成佛할 것이다.’라고 하는 校證기록이 1卷 卷首에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行자수

는 8行 16/17字, 책의 크기는 대략 27.5×19.0cm이다. 1卷 卷首의 校證記와 8卷末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1卷 卷首 校證記

: 四明 信人 習善 徐行善 書本 將注入科經 募緣刊

四明海慧教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乾符承天教寺住持 北溪沙門德謙重校

四明資教寺住持 虛室沙門可明重校

四明金地教院前住持 險崖沙門無住同校

四明前瑞相教院住持 東山沙門如日同校

四明世忠教院住持 秋墟沙門善入同校

四明前寶梵教院住持 月巖沙門文桂重校

四明白衣廣仁教寺住持 半巖沙門道全重校 於未來世 咸得成佛

8卷 卷末刊記: 延寶第四丙辰(1676)天孟秋上浣寺町通二條下町中村五兵衛開板

②는 元나라 徐行善이 科註한 『科註妙法蓮華經』을 必昇이 校證한 책으로 17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木板本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8行 16字이나 卷2와 卷4는 底本の 5行 16字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는 있지만 행자수가 부정확하다. 책의 크기는 대략 34.0×19.3cm 정도이다.

卷1上의 卷首의 序에는 『科註妙法蓮華經』의 경문 앞에 天台疏와 그와 관련된 의미를 기록함에 姚秦의 三戒法師 鳩摩羅什이 명을 받들어 지은 序文, 道宣이 지은 ‘妙法蓮華經 弘傳序’와 必昇의 서문인 ‘依天台科釋註法華經序’가 있고 1295년 미륵생신에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卷1下의 卷首題 아래에 ‘信人 習善이 시주하여 徐行善 書本을 刊行함에 必昇이 校證하고 善良이 重校하니, 養必道子 史隣鄉은 재물을 重校하는데에 시주하고, 信人 茶妙智, 錢三娘, 高震龍, 范妙觀, 茶用中, 陳妙善이 함께 刊行에 시주하였다.’는 내용의 刊行 및 校證記가 있으며, 卷2에는 德謙이 重校한다는 기록이 있고, 卷3-卷7의 卷首題 아래에도 信人 習善이 시주하여 徐行善 書本을 刊行함에 必昇이 校證하고 無住, 如日, 善入이 校證에 동참하거나, 文桂, 道全이 重校하였다는 내용의 刊行 및 校證記가 있다. 특히 卷5에서는 徐行善 書本을 刊行함

에 信人寔礪 徐行奉이 刊行에 시주한 기록이 있다.

卷首 品題下의 施財記의 경우, 卷2에는 ‘德謙이 重校하고, 蔡妙智가 先室 徐靖眞을 위하여 法文을 써서 說하고, 了訓이 先志의 往生을 소망하며 재물을 시주하여 刊行한다’는 내용이고, 卷4에는 女弟子胡二娘, 童女徐正娘, 女弟子徐氏善二娘, 信士雲山 蔡時中, 信人仲山 劉覺超, 信人雲嬭 蔡執中, 卷5에는 女弟子蔡都眞, 卷6에는 弟子陳行貴, 女弟子陶妙淨, 童女徐壽娘, 童男 徐長孫, 卷7에는 女弟子王正柔, 花用史 道佑, 女弟子湯善和, 弟子王善本, 女弟子錢靖柔가 刊行에 시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卷1上의 3편의 序文과 각 권의 刊行 및 校證記와 施財記는 다음과 같다.

卷1上 : ① 卷首[序] 科註妙法蓮華經經前錄 天台疏諸義 姚秦三戒法師鳩摩羅什奉詔…‘姚秦者…今錄如是一句…非通非別觀也云云’

② 妙法蓮華經 弘傳序/終南山 釋道宣述 [科文]

③ 依天台科釋註法華經序/四明海慧敎院住持 副校 沙門平礪必昇述 (末)法華諸品起盡之圖 ‘靈山會上妙法華經…元貞改元乙未歲(1295)彌勒生辰書’

卷1下 : 刊行 및 校證記 (卷首題 아래)

四明 信人習善 徐行善 書本 將注入科經 募緣刊

四明海慧敎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南湖福地延慶敎寺住持 月谿沙門善良重校

養必道子史璘鄉施財重校

信人茶妙智錢氏三娘高震龍范氏妙觀茶用中陳妙善同施財刊

(湧出品 第十五 下)

清信女弟子安氏正圓 同夫徐行奉 發心刊

卷2 : 刊行 및 校證記 (卷首, 經題 및 品題 아래)

四明乾符承天敎寺住持 北溪沙門德謙重校

書法說文蔡妙智爲先室徐氏靖眞了訓先志求願往生施財刊

卷3 : 刊行 및 校證記 (卷首題 아래)

四明 信人習善 徐行善 書本 將注入科經 募緣刊

四明海慧敎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金地敎院前住持 險崖沙門無住同校

四明前瑞相敎院住持 東山沙門如日同校

- 卷4：刊行 吳 校證記（卷首，卷題下）
四明信人習善 徐行善 書本將注入科經募緣刊
四明海慧教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前瑞相教院住持 東山沙門如日同校
- 卷4：施財記（卷首，品題下）
四明清信女弟子胡氏二娘同童女徐正娘施財刊（第21張 品題下）
四明清信女弟子徐氏善二娘施財刊（第35張 品題下 見寶塔品）
四明信士雲山蔡時中施財刊（第50張 品題下 提婆達多品）
四明信人仲山劉覺超施財刊（第50張 品題下 提婆達多品）
四明信人雲煥蔡執中施財刊（第50張 品題下 提婆達多品）
- 卷5：刊記（卷首，卷題下）
四明信人習善徐行善 書本將注入科經募緣刊
四明信人寔礪徐行奉施財金刊 此一卷
四明海慧教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世忠教院住持 秋墟沙門善入同校
- 卷5：施財記
女弟子蔡氏都真 施財刊
- 卷6：刊行 吳 校證記
四明信人習善 徐行善 書本將注入科經募緣刊
四明海慧教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前寶梵教院住持 月巖沙門文柱重校
- 卷6：施財記（品題下）
四明清信弟子 陳行貴 施財刊
四明清信女弟子陶氏妙淨捨財刊（如來神力品）
童女 徐壽娘 施財刊（常不輕菩薩品）
四明清信童男 徐長孫 發心刊（法師功德品）
- 卷7：刊行 吳 校證記
四明信人習善徐行善 書本將注入科經募緣刊
四明海慧教院住持 平礪沙門必昇校證
四明白衣廣仁教寺住持 半巖沙門道全重校
- 卷7：施財記（品題下）
四明清信女弟子王氏正柔施財刊（妙音菩薩品 第二十四）
花用史 道佑 施財刊（普門品 第二十五）
四明清信女弟子湯氏善和施財刊（陀羅尼品 第二十六）
四明清信弟子王善本施財刊（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四明清信女弟子錢氏靖柔捨財刊（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2.2.10 『註妙法蓮華經』

天理大 소장본, 영본 1冊 (卷7)

이 책은 영본 1冊의 필사본으로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을 참고해 보면 『注法華經』의 저자로 劉虬²⁾가 있는데, 그의 저서인 『注法華經』은 이미 없어졌고, 다만 智顓의 『法華經文句』나 吉藏의 『法華玄論』, 『法華義疏』 등의 책에 일부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天理大에서는 守倫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宋代 守倫의 『科註妙法蓮華經』 10卷 중 영본 1冊의 筆寫本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紙質 등으로 판단하면 일본에서 筆寫된 것으로 보인다. 장정은 折帖裝이며, 1張 6-7面으로 일정 기준 없이 적절히 배분하여 절첩하였고, 행자수는 1面 3行 16字, 책의 크기는 24.2×8.5cm이다.

2.3 『法網經』의 註釋書

2.3.1 『菩薩戒本持犯要記』

- ① 東大寺 소장본, 1卷 1冊
- ② 大正大 소장본, 1卷 1冊
- ③ 大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冊

東大寺 소장본인 ①은 元曉가 저술한 1卷 1冊의 筆寫本이다. 1301년 일본의 南都三學院에서 導顯이 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정은 大和綴이며, 행자수는 6行 20-21字에 계선을 押界하였고, 刊記는 다음과 같다.

2) 劉虬(438-495): 南齊 南陽 涅陽(河南 鎮平縣 남쪽)人으로 字는 靈預 또는 德明이다. 저서 『注法華經』은 이미 없어졌고, 다만 智顓의 『法華經文句』나 吉藏의 『法華玄論』, 『法華義疏』 등의 책에 일부 전해지고 있다(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서울: 이회문화사, 2011)).

刊記：正安三年正月八日於南都三學院筆寫/
偏是[內]興隆佛法和□□導顯/
[]勸學院 明源□/ 傳戶眞照基/

大正大 소장본인 ②는 元曉가 저술한 1卷 1冊의 木板本이다. 1654년 일본의 瀧庄三郎이 간행하였는데, 底本은 1244년(寬元 2)에 摸功하였으니 大安寺의 信忍이 般若寺의 輪藏에 보관시켰다. 1639에 南京에서 유학할 당시 東大寺 上生院의 古本을 필사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7字, 책의 크기는 26.5×17.4cm이고, 卷末의 刊記와 墨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刊記：寬元二甲辰(1244)十一月二十四日摸功畢/ 勸進大安寺僧信忍/
般若寺轉法輪藏/ 寬永十六(1639)之天南京遊學之時以東大寺/
上生院古本書寫[]令律燈傳諸無/ 窮矣/ 寓泉涌小[]丘/ 記焉/
承應三年甲午(1654)八月吉辰瀧庄三郎/
墨書：天和癸亥(1683)知藏存榮附之卷舒之功各廻自他俱登華臺而已

大谷大 소장본인 ③은 元曉가 저술한 不分卷 1冊의 木板本이다. 1688년 일본의 田中庄兵衛에서 간행하였다. 앞서 간행한 것이 脫誤가 많지 않으나 ‘平城 極樂律院에 소장한 舊本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워 새겨서 오래 전하게 했다’는 木記가 있다. 저본은 1244년(寬元 2)에 摸功한 것으로, 위의 大正大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大安寺의 信忍이 般若寺의 轉法輪藏에 소장시킨 것으로 1639년에 南京에서 유학할 당시 東大寺 上生院의 古本을 필사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7字, 책의 크기는 25.4×17.2cm이고, 卷末刊記는 다음과 같다.

底本刊記：寬元二甲辰(1244)十一月廿四日 摸功畢/
勸進大安寺僧信忍般若寺轉法輪藏
別途木記內：先所刊行脫誤不[多]平城極樂律院/ 所藏舊本殆乎充當屬劔副氏令壽/
于梓願[]萬等喰一味
刊記：元祿元年戊辰(1688)十一月吉日/ 田中庄兵衛梓

2.3.2 『菩薩戒本宗要』

大正大 소장본, 1卷 1冊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8行 16字, 책의 크기는 27.1×17.6cm이다. 薦福寺의 道峯이 撰한 ‘太賢法師義記序’와 1675년 村上勘兵衛에서 간행하였다는 卷末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太賢法師義記序：大薦福寺僧道峯撰 吾望悠悠群動…仰鑒而秦之鏡者爾
刊記：延宝三乙卯年(1675) 林鍾吉且/ 村上勘兵衛 刊行

2.3.3 『梵網經古迹記』

大正大 소장본, 4卷 4冊 (合綴 3種)

이 책은 太賢이 저술한 책으로 木板本이다. 1678년에 일본 堀井傳右衛門에서 간행한 것으로, 제첩제는 ‘梵網古迹記’로 木板에 새긴 것을 붙여놓았으며 ‘玄達之’라는 墨書가 있고, 서근제는 ‘梵古迹 下一, 二, 三, 四’이다. 또한 ‘梵網古迹記 下本一, 下本二 / 梵網經古迹記 下末一, 下末二’라고 되어 있는 화구제가 있다. 형식의 구성이 ‘梵網經古迹記’, ‘古迹記科文’, ‘古迹記註釋’의 순으로 배치된 3種의 合綴本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본문은 10行 21字이고, 주석은 21行 30字이며, 책의 크기는 27.9×19.2cm이다. 卷末의 刊記는 ‘延寶6年(1678) [戊]午正月吉日 新町一條下田丁本[]堀井傳右衛門 開板’이다.

2.3.4 『梵網經述記』

- ① 大正大 소장본, 4卷 2冊 (合綴 4種)
- ② 東洋大 소장본, 4卷 4冊 (合綴 4種)

大正大 소장본과 東洋大 소장본은 勝莊이 저술한 木板本이며, 1714년 일본의 京城에서 간행한 林重義藏板으로 동일 판본이다. 형식의 구성은 後秦三藏法師

鳩摩羅什의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第十’, 勝莊의 ‘梵網經述記’, ‘梵網經菩薩戒本抄’, ‘梵網經疏’의 순으로 배치된 4種의 合綴本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19字, 책의 크기는 대략 27.8×18.8cm이다. 두 책은 제책 형태만 다를 뿐 版口나 版心題까지도 동일하며, 卷末의 刊記는 ‘正德甲午年(1714)十一月吉日 京城 林重義藏板’이다.

2.4 『圓覺經』의 註釋書

2.4.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天理大 소장본, 4卷 4冊 (卷1-4)

이 책은 木活字本으로 刊記에 간행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寬永 3년(1626)에 일본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정은 4침안 선장본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8.2×20.4cm이다. 卷首에 ‘大方廣圓覺略疏注經序’가 2편인데, 하나는 集賢殿大學士 裊休의 撰이며, 다른 하나는 이 책의 저자인 終南山 草堂寺沙門 宗密이 述한 自序이다. 그리고 各卷 卷末 面紙(4卷의 경우는 卷首)에 睿峯 盛憲의 墨書 기록과 署名이 보인다. 卷首의 序와 卷末의 墨書와 刊記는 다음과 같다.

卷首：序

- ① 大方廣圓覺略疏注經序/ 金紫興祿大夫守中書侍郎兼戶部尚書同/ 中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 裊休撰
‘夫血氣之屬必有知…其他備乎本序云’
- ② 大方廣圓覺略疏注經序/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
‘元亨利貞 乾之德也…本經庶即事即心日益損者矣’

卷末面紙 墨書

- 1卷：寬永第三天(1626)丙刀 睿山盛憲之
- 2卷：武(剗)江戸在留之[]打之以[]謹爲後賢直書/
寫[]又依兵爭又之功者現世安穩塚士害處二世/身心安[]而已
[歲]寬永第四丁卯天升月土夕/ 睿岳山門盛憲之

- 3卷 : 又僧正應貴命江戸在留之[邱]右只書寫[]/
 後賢去覺之[]之頓大菩[]同向所印也/ 門至佛記年等普利
 歲寬永第四(1627)丁卯三月九[] 睿峯山門 杓[] 盛憲敬白
- 4卷(卷首面紙) : 睿峯 盛憲
- 4卷 卷末刊記 : 寬永三丙寅曆三月吉辰 刊摺之畢

2.5 『佛說盂蘭盆經』의 註釋書

2.5.1 『盂蘭盆經疏新記』

天理大 소장본, 2卷 2冊 (卷1, 2)

이 책은 充國沙門 宗密이 저술한 책으로 1505년에 일본에서 간행한 木板本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에는 『盂蘭盆經』의 주석서로 宗密의 저술은 ‘疏1권’이 수록되어 있으며, ‘疏新記’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권1의 1張에는 錢唐沙門 元照가 지은 ‘盂蘭盆經疏新記 并序’가 있으며, 卷1 본문 第1張 앞에 후대에 1張을 추가하여 제본하였는데, 이 장에는 錢唐, 沙門, 元照, 敎是道門, 敎爲行本, 沉冥, 惻隱, 大端, 叔世 등 9개의 표제어에 대해서 墨書로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하였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14~15字이며, 표지는 紺紙인데 紅絲로綴하였다. 包匣의 題簽題는 ‘盂蘭盆經疏’라고 되어 있으며, 卷末의 刊記는 ‘永正乙丑之歲(1505)比丘守[]僉工鏤版置惠日不二庵’이다.

2.6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의 註釋書

2.6.1 『本願藥師經古跡』

- ① 東洋大 소장본, 1卷 1冊
- ② 東洋大 소장본, 2卷 2冊 (上, 下)
- ③ 大谷大 소장본, 2卷 2冊 (上, 下)
- ④ 大正大 소장본, 2卷 1冊 (上, 下)

東洋大 소장본 ①은 1卷 1冊의 木板本으로 1649년에 일본의 京嶋 藥師前

敦賀屋久兵衛에서 간행한 것이다. 卷末에는 幹緣比丘 眞圓이 1304년(嘉元 2)에 이 책을 간행해서 후대에 널리 經義를 펴서 佛德으로 중생들의 병을 다 없애 달라는 기원을 담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8行 17字, 책의 크기는 27.5×18.1cm이다. 卷末의 刊記와 기록은 다음과 같다.

刊記：慶安二年己丑(1649)初秋吉日 京蛸藥師前敦賀屋 久兵衛刊板
誌語：忝歸醫王善逝本願專依大聖文殊方便是/ 以偏爲報謝聖恩
勸同法衆來開此印板冀流/ 遐代廣通經義普歸佛德悉除衆病而已/
嘉元二年(1304)甲辰十一月日/幹緣比丘眞圓謹誌

東洋大 소장본 ②는 上·下 2卷 2冊인 木板本으로 1675년에 일본의 村上勘兵衛에서 간행한 것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6行 14字, 책의 크기는 26.4×17.5cm이며, 卷末의 刊記는 ‘延寶三乙卯年(1675)林鍾吉日村上勘兵衛刊行’이다.

大谷大 소장본 ③은 ‘上·下’의 2卷 2冊인 木板本으로, 위의 東洋大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6行 14字, 책의 크기는 27.3×19.3cm이며, 卷末의 木記는 ‘延寶三乙卯年(1675)林鍾吉日村上勘兵衛刊行’이다.

大正大 소장본 ④는 ‘上·下’의 2卷 1冊인 木板本으로 卷末의 刊記가 자세하지 않아서 간행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일본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6行 14字, 책의 크기는 26.5×18.1cm이며, 卷末의 기록은 ‘中村[][][]開板’이다.

2.7 그 외의 註釋書

2.7.1 『無量壽經宗要』와 『佛說阿彌陀經疏』의 合綴本

大正大 소장본, 2卷 1冊 (合綴 2種)

이 책은 大正大 소장본으로 新羅의 元曉가 저술한 『兩卷無量壽經宗要』와

『佛說阿彌陀經疏』의 2種이 合綴된 2卷 1冊의 木板本이다. 『兩卷無量壽經宗要』는 1711년(寶永 8)에 일본의 松本屋清兵衛에서 간행한 것으로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9行 17字, 책의 크기는 26.3×18.7cm이다. 合綴본인 『佛說阿彌陀經疏』의 행자수는 10行 20字이고, 南宋 慶元 4년(1198)에 雪川烏戌比丘宗[相]이 쓴 底本の 跋文과 1658년 일본의 五條[榜]通書林에서 간행한 내용을 기록한 刊記가 있다. 그 후, 1711년에 일본의 松本屋清兵衛에서 『兩卷無量壽經宗要』와 合綴하여 2卷 1冊의 木板本으로 刊行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卷末의 刊記와 권말 뒤에다 함철한 『佛說阿彌陀經疏』 底本인 南宋 때의 跋文과 일본에서 간행한 刊記는 다음과 같다.

卷末刊記：寶永八稔(1711)辛卯元月吉旦松本屋清兵衛藏

合綴本 『佛說阿彌陀經疏』의 跋文과 刊記

跋：往行… 峯慶元四季(1198)正月既望雪川烏戌比丘宗[相]謹跋

刊記：明曆四戌戌(1658)孟春吉旦/五條[榜]通書林, []村九郎右衛開刊

2.7.2 『般若心經疏顯正記』

大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冊

이 책은 大谷大 소장본으로 宋나라 仲希가 찬술한 『般若心經疏顯正記』인데, 不分卷 1冊의 木板本으로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대, 간행처는 자세하지 않으나 序文을 통해서 본다면 底本刊記는 송나라 慶曆 4년(1044)³⁾이며, 後代에 일본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5.4×17.0cm이며, 序文의 내용은 ‘予嘗輒又以賢首大師般若心經疏注於… 爾時皇宋慶曆四年(1044)歲次甲申季冬月朔日序’이다.

3) 唐나라 玄奘이 翻譯(648)한 『般若波羅密多心經』을 바탕으로, 法藏이 註釋(702)을 단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에 宋나라의 仲希가 자신이 지은 『顯正記』를 붙여 다시 편찬(1044)한 것이 『般若心經疏顯正記』이다.

2.7.3 『解深密經疏』

大谷大 소장본, 9卷 9冊 (卷1-9)

이 책은 大谷大 소장본으로 圓測이 저술한 것으로 1776년에 일본 高野山如意輪院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大樂院에서 필사한 것이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7.0×18.9cm이다. 卷9의 뒷표지 안에 朱書로 기록한 刊記는 ‘安永五丙申(1776)七月中旬高野山如意輪院/藏本於大樂院騰[謄]寫焉’이다.

2.7.4 『仁王經疏』

大谷大 소장본, 6卷 4冊 (卷上 本, 末, 卷中 本·末, 卷下 本·末)

이 책은 圓測이 저술한 것으로 筆寫本이다. 권2의 卷末에 일본 天喜 3년(1055) 8월 12일에 표점을 마쳤다는 기록과 함께 後代의 기록도 함께 보이는데, 1074년 9월에 ‘筆寫를 끝냈다’는 기록과 1744년 6월 22일에도 ‘筆寫를 마치고 拜’하며 ‘나의 소원은 살아서 般若波羅密多의 바다에서 노니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권3의 卷末에는 일본 元久 2년(1205) 4월 10일에 筆寫를 끝냈다는 기록이 있어 일본에서 세대를 이어 필사하여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4.6×18.6cm이며, 권2, 권3의 卷末기록은 다음과 같다.

卷2：元文二年(1737)四月二十一日於雨中閑居交點了/點本云/
天喜三年(1055)八月十二日辰時點已/長講會講師明範院聽衆僧經講/
招提寺五室宗祐/
宝永元年(1704)九月日書寫之 如幻慧嚴/
延享改元(1744)申子六月二十二日 溽暑如[夔?]拜寫了/
(*원문의 ‘申子’는 ‘甲子’의 오자로 추정)
願生之遊般若波羅密多海者也

卷3 : 元久二年(1205)朱明四月十日書寫了/
同月十一日交點已了/
傳領[]海/
傳領覺[]/
唐招提寺五室宗祐

2.7.5 『涅槃經遊意』

龍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冊

龍谷大 소장본인 『涅槃經遊意』는 不分卷 1冊의 筆寫本으로 저본의 刊記가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간행 연도나 간행처를 알 수는 없으나 20세기 初에 필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1字, 책의 크기는 23.2×16.3cm이며, 卷末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道融先於江南會[]遊學聞彼大法等云其吉/ 藏法師炎疏記等百濟僧
並將歸鄉所以比間/ 無本筮行道融京感亭年過見百濟賢者/
持此吉藏法師炎玄意行故鄉寫之二有疏而/ 未得讀乃寫其賢者在彼訓”

2.7.6 『法維摩詰經』

龍谷大 소장본, 2卷 2冊 (乾, 坤)

이 책은 龍谷大 소장본으로 筆寫本이며,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 및 간행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 2冊의 面紙에 墨書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20세기에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4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21字, 책의 크기는 24.0×16.7cm이며, 冊末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冊 面紙墨書 : 昭和二年(1927)六日御下附/監事秦法勵/書籍孫 品下密一
別紙 : 司教 大安 /維摩記 共二冊
2冊 面紙墨書 : 昭和二年(1927)六日御下附/監事秦法勵/

3. 論書의 註釋書

3.1 『大乘起信論』의 註釋書

3.1.1 元曉의 『大乘起信論別記』

- ① 大正大 소장본, 2卷 2冊
- ② 大正大 소장본, 2卷 2冊
- ③ 東洋大 소장본, 2卷 2冊

위 3건은 모두 元曉의 『大乘起信論別記』로 本·末 2卷 2冊의 목판본이다. 大正大 소장본 ①에는 版心題에 ‘起信論海東別記 本, 末’, 大正大 소장본 ②에는 ‘起信元曉疏 本, 末’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東洋大 소장본에는 ‘本 起信論元曉 本’, ‘末 起信論元曉 末’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장정은 線裝(5針綴)으로 本文은 10行 20字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大正大 소장본 ②의 경우는 大文이 5行 14字, 東洋大 소장본은 大文이 5行 10字인 것을 볼 수 있다.

大正大 소장본에서는 卷末刊記를 통해 刊行時기를 알 수 있으나, 東洋大 소장본은 卷末에 筆寫로 보충한 기록만 있고 刊記는 없어서 刊行時기를 알 수가 없다. 卷末 刊記 내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 大正大 소장본 ① : 萬治2年(1659)己亥九月原板/ 天明元年(1781)辛丑六月再刻
皇都書林/ 村上勘兵衛/ 出雲寺文次郎/ 池田屋七兵衛
- 大正大 소장본 ② : 萬治2歲九月吉日

3.1.2 元曉의 『大乘起信論疏』

- ① 大正大 소장본, 2卷 1冊
- ② 大正大 소장본, 2卷 2冊
- ③ 東洋大 소장본, 2卷 2冊

위 3건은 모두 元曉의 『起信論疏』이며, 木板本이고 序文에 나타난 바 刊行時期는 元祿 9年(1696)이다. 版心題에는 ‘起信論海東疏’라 명기되어 있고, 線裝(4針

綴), 10行 20字로 모두 동일하다. 大正大 소장본 ①, ②의 경우는 同一本이나 종이의 재질이 다르며, ①의 書根題는 ‘海東天/海東地’이고, ②의 書根題는 ‘海東起信論’이다. 東洋大 소장본 ③에는 書根題가 없다. 서문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卷末刊記 내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序文：起信論海東疏刊行序

釋於大衆起信論之疏振古凡/ 有三品日法藏日慧遠日元曉/
世謂之本論三師就中先二疏/ 行于世年已尙矣 …
元祿九龍飛丙子之秋日/ 洛東智積門下覺眼謹誌

卷末刊記

- ①：元祿9年(1696)歲次丙子九月吉日井上忠兵衛書林大角清兵衛 壽梓
- ②：元祿9年(1696)歲次丙子九月吉日井上忠兵衛書林大角清兵衛 壽梓
- ③：元祿9年(1669)歲次丙子九月吉日 書林 井上忠兵衛 壽梓

3.1.3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

東洋大 소장본, 4卷 2冊

東洋大 소장본의 저자 淨影寺 惠遠은 慧遠과 동일 인물이다. 이 冊은 上之上, 上之下, 下之上, 下之下的 4卷 2冊이며, 1669년(寶文 9 己酉)에 간행된 것으로 목판본이다. 卷末刊記는 ‘法華宗門書堂/ 寶文九己酉年/ 正日吉長’이다.

3.1.4 曇延의 『大乘起信論義疏』

龍谷大 소장본, 不分卷 1冊

龍谷大 소장본은 不分卷 1冊(卷上, 58張)의 筆寫本이다. 線裝(4針綴), 10行 20字이며, 書根題는 ‘起信論曇延義疏 全’이다. 1757년(寶曆 7) 善幢이 曇延의 『大乘起信論義疏』를 原寫하였고, 沙門善幢이 原寫한 것을 安永 2年(1773)에 慧樞가 다시 筆寫했다는 내용이 卷末에 기록되어 있다.

卷末기록：時寶曆七龍踵丁丑禩九月上/ 浣日於攝州住吉那中

在家邑旅館謄寫之畢/ 沙門善幢 于時安永二歲於長安寫之畢 西犯慧樞

3.2 『順正理論』의 註釋書

3.2.1 『止觀大意』

東洋大 소장본, 不分卷 1冊

이 책은 唐代의 湛然이 저술한 것인데 不分卷 1冊의 木板本으로 1860년 일본 東叡山 勸學講院에서 간행한 것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8행 12字, 책의 크기는 26.2×18.4cm이다. 1719년(享保 己亥) 가을, 天台沙門 覺道가 쓴 止觀大意 重刻 跋文을 살펴보면 ‘荊溪尊者가 撰한 『止觀大意』는 그 글이 겨우 10장이나… 내가 和尚에게 그 책을 달라고 청하여 세상에 드러내 놓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後識에는 ‘이 책은 荊溪大師가 貝外 李帶의 十科精要를 모으자는 요청으로 인하여 貝의 行相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라는 1860년 여름, 慧澄의 기록이 있다. 刊記와 跋文, 後識는 다음과 같다.

刊記：東叡山勸學講院藏版 萬延元庚申年(1860)六月/

製本所江戶下谷廣德寺前通/ 台宗書林 和泉屋庄次郎

跋文：重刻止觀大意跋/ 荊溪尊者所撰止觀大意其文僅十紙.而大部綱要…

予爲請和尚與之以公于世云時/ 享保己亥(1719)秋九月下旬/

天台沙門覺道謹書

後識：此書荊溪大師因貝外李帶請撮十科精要/ 示貝行相無價寶哉

萬延紀元庚申首夏東叡淨名幻佳苾芻慧澄謹識

3.2.2 『天台八教大意』

東洋大 소장본, 合本 (3種 1冊)

이 책은 隋代 灌頂(561-632)이 撰한 『天台八教大意』와 『南嶽恩大禪師立誓願文』, 『天台智者大師禪門口訣』 3種이 合本된 1冊의 木板本으로 1675년에 일본 淺野久兵衛에서 刊行하였다. 『天台八教大意』는 淸나라 順治 18年(1661)의 刊本이며, 『天台智者大師禪門口訣』은 康熙 6年(1667)의 刊本이다. 1667년(康

熙 丁未) 여름에 浙江 嘉興府 楞嚴寺 般若堂에서 『天台智者大師禪門口訣』을 重刊한 기록에 ‘글자는 모두 5,023字이고 銀 2냥 9전 4분이 들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8行 15字, 책의 크기는 25.7×17.4cm이다. 版心에는 각각 ‘八教大意’, ‘南嶽願文’, ‘天台口訣’이라 되어 있다. 이 책의 刊記와 각각의 底本刊記는 다음과 같다.

[卷末] 刊記：延宝三乙卯年(1675)中夏吉長/淺野久兵衛刊行
底本 刊記：

- ① 天台八教大意：順治十八年八月日 經山比丘徹微印開識
- ② 天台智者大師禪門口訣：浙江嘉興府楞嚴寺般若堂本年坊貨重刊/
計字五千零廿三個/該銀二兩九錢四分/
康熙丁未(1667)夏日
- ③ 南嶽思大禪師立誓願文
己亥歲冬十月廿一日古梅菴/ 按指禪師四十初度信弟孫萬里劉乾/
[]尙質張一虬賀贊/ 吳宗盛煥經等各出分金爲刻/ 大藏
南嶽思大禪師立誓願文一卷計字七千一/ 百五十六箇
仰祈/佛日增輝禪師道康泰早完刻藏因絃/壽躋期願以無量福德
普疵羣生尹尹如意/闡釋明眼書金陵郡嘉楷刻

3.2.3 『天台八教大意』

東洋大 소장본, 1卷 1冊

이 책은 高麗의 諦觀이 저술한 1卷 1冊의 목판본으로 1693년 刊本을 1851년에 일본 台宗書林 下谷廣德寺에서 다시 간행한 ‘東叡山藏版’이다. 장정은 線裝(4針綴)으로 행자수는 10行 15字, 책의 크기는 26.4×18.2cm이다. 卷末에 東叡淨名比丘 慧澄의 跋文이 있다. 卷末의 跋文과 刊記는 다음과 같다.

跋文：高麗 四教儀僅三十餘[絨]才泉教門…逗頃日山衆[]議改刻之
以便童蒙習謨刻成其由因識之卷尾云/

嘉永四年(1851)辛亥夏/ 東叡淨名比丘慧澄

刊記：元錄六年(1693)癸酉孟春舊刻/ 嘉永四年(1851)辛亥八日再刻/
御製本所/ 台宗書林/ 下谷廣德寺前 和泉屋庄次郎

3.2.4 『四念處』

東洋大 소장본, 4卷 2冊

이 책은 天台山修禪寺 智者大師가 說한 『四念處』 卷1-4로 1647년에 일본 要法寺 堤六左衛門에서 刊行한 4卷 2冊의 木板本이다. 卷4에는 ‘天台山修禪寺 智顓說’이라 되어 있는데 智顓가 바로 智者大師이다. 장정의 형태는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6.8×18.0cm이다. 卷4의 卷末 刊記는 ‘正保四丁亥年(1647)仲春吉長要法寺之前堤六左衛門開板’이다.

3.2.5 『四教儀』

東洋大 소장본, 12卷 2冊

이 책은 隋나라 智顓가 撰한 『四教儀』 卷1-12의 저술로 세존의 가르침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藏教, 通教, 別教, 圓教를 해설한 것⁴⁾인데 1688년에 일본 淺野久兵衛에서 간행한 12卷 2冊의 木板本이다. 판심제는 ‘天台四教儀’이고, 제첨제와 화구제에는 ‘支那撰述 天台四教義 自一至六, 自七至十二’라고 되어 있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5.5×17.8cm이다. 冊末의 刊記는 ‘貞享五戊辰(1688)仲春吉日書林 淺野久兵衛 開板’이다.

3.2.6 『寶藏論』

東洋大 소장본, 全卷 1冊

이 책은 僧肇가 저술한 1冊의 목판본이다. 卷末에 刊記가 없어 간행년대는 알 수가 없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8字, 책의 크기는 26.1×18.5cm이다.

4) 광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3.3 『瑜伽師地論』의 註釋書

3.3.1 『瑜伽師地論略纂』

龍谷大 소장본, 영본 14冊 (卷1-4, 卷6, 卷8-16)

이 책은 窺基가 撰한 ‘권1-4, 권6, 권8-16’의 영본 14冊의 筆寫本이다. 窺基의 『瑜伽師地論略纂』은 ‘卷第1-16, 論本 第1-66’인데 論本の 경우도 결락된 부분이 다소 있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行자수는 10行 21字, 책의 크기는 20.0×19.4cm이다.

3.3.2 『瑜伽論記』

① 龍谷大 소장본, 24卷 48冊 (卷1上, 論本卷1-24下)

② 大正大 소장본, 24卷 48冊 (卷1上-24下, 卷本94至96)

이 책은 遁倫이 集撰한 24卷 48冊의 木板本으로 1733년에 일본 京北書館 등에 서 간행한 것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行자수는 10行 21字, 책의 크기는 26.7×18.2cm이다. 권말의 跋文과 刊記는 다음과 같다.

① 龍谷大 소장본

跋文：跋瑜伽論記後

李唐遁倫大德…享保癸丑(1733)季夏中澣沙門性成敬誌

刊行：京北書館/ 出雲寺和泉椽/ 文莞屋治良兵衛/ 河南四良右衛門/
文莞屋多兵衛/ 梅井藤五郎/ 林氏德兵衛/

② 大正大 소장본

跋文：跋瑜伽論記後

李唐遁倫大德覃精瑜伽撰此論/ 記前修之美獨造之蘊集而大成/
者也區闢茸何須讚一辭耶然/ 斯書存世僅僅可數而木必名山古/
剝則轉罕傳而見者尋往者懇求/ 瞻錄一本敬藏篋苟但久歷年所/
文字訛舛非無憾焉後得標慈心/ 藏本者三得授繹取正不少歎而/

獨嘆如斯法寶流行不充何也益/ 以吾輩自謀與學者憚繕寫之艱/
也遂興鄙懷圖之印布剛生側聞/ 樂拭梨棘於是不顧寡陋輒副國/
讀于字句傍其所校正者不敢妄/ 剛訂原文標之格頂梢可疑者圈/
之學傍俟覽者之采擇豕渡蠹傷/ 猶有不安者後君子幸鑒定焉享/
保癸丑(1733)季夏中澣沙門性威敬誌/

刊行：河南四良右衛門/ 文莞屋治良兵衛/ 梅井藤五郎/ 林氏德兵衛/

3.4 그 외의 註釋書

3.4.1 『成唯識論』

天理大 소장본, 영본 1冊 (卷2)

이 책은 『成唯識論』의 주석서인 혜沼의 『成唯識論了義燈』으로 ‘卷2’의 영본 1冊인 木板本이며, 12세기경 일본 平安 末期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卷軸裝이며, 행자수는 30行 21字이다.

3.4.2 『法華論疏』

龍谷大 소장본, 3卷 3冊 (卷上, 中, 下)

이 책은 世親이 지은 『法華論』의 주석서인 吉藏의 『法華論疏』로 ‘卷上, 中, 下’의 3卷 3冊으로 된 木板本이다. 1714년 일본의 錢屋庄兵衛에서 간행한 것으로, 이 책을 간행할 때 咸潤이 쓴 ‘刻法華論疏序’라는 서문이 있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 (4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19字, 책의 크기는 27.1×18.9cm이다. 序文과 卷末 刊記는 아래와 같다.

序文：刻法華論疏序/ 法華論疏者嘉祥大師之所撰…
正德甲午(1714)孟冬朔/ 台山本住沙門咸潤叙
卷末刊記：京堀川通綾小路于町/ 錢屋庄兵衛 板行

3.4.3 『金剛錮文句科』

東洋大 소장본, 1卷 1冊

이 책은 智圓의 『金剛錮文句科』로 1卷 1冊의 木板本이다. 卷末기록에는 일본 文祿 2년(1593)에 牛刻沙門 日陽이 科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행 12字, 책의 크기는 27.7×19.6cm이며, 卷末기록은 다음과 같다.

卷末기록 : 爰有新學之比五謂余歎日金/ 剛錮一卷未得分科之文濫漫/
而難見也幸哉余始於今日求/ 得圓公顯性祿放於三日中以/
此科之果遂於比五之心期耳/ 願酉別此功用[]與此五及以-/
切衆生皆共成佛之知見也若/ 到外方者請只止笑隱沒也/
時文祿二年(1593)歲在癸巳正月七/ 日牛刻沙門日陽科之/

3.4.4 『金剛錮顯性論』

東洋大 소장본, 4卷 4冊

이 책은 湛然의 『金剛錮論』의 注釋書인 智圓의 『金剛錮顯性錄』으로 4卷 4冊의 木板本이다. 卷末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나 간행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질로 보아 일본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행 19字, 책의 크기는 26.0×18.5cm이다. 宋 眞宗 景德 3년(1006)에 ‘顯性錄’이라고 이름하게 된 이유를 밝혀 놓은 서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序] : 金剛錮者 荊溪大師宗圓頓敎所著論也發揮佛/
擬議圓宗[]萬法於一心息異論於千古抑又/
開後昆之智眼喻金錮以元名敍前代之權疑寄/
野客而興問其道甚大嘉言孔彰俾佛性昭昭無/
爲昏情所隱者其比論矣圓耽味沉習元有年救焉/
於是採摭群言敍暢厥旨所期自照敢貽他人旣/
錄本宗要文顯此佛性妙義田命爲顯性錄也時/
皇宋景德三年(1006)歲次丙午秋望日序

4. 律書의 註釋書

4.1 『四分律含注戒本疏』

天理大 소장본, 4卷 8冊 (卷1上·下-卷4上·下)

이 책은 終南太一山沙門 道宣이 저술한 ‘卷1上·下, 卷2上·下, 卷3上·下, 卷4上·下’의 4卷 8冊으로 木活字本이다. 卷末에 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년도는 알 수가 없으나 지질 등으로 보아 일본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0行 19字, 책의 크기는 27.9×19.8cm이다.

앞서 『四分律比丘含注戒本』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廣律에 따르면 唐 太宗 貞觀 8년(634)에 책이 완성되고 뒤에 그 3권을 다시 교정하면서 疏 8권을 지었다⁵⁾고 하였는데 이 책의 8卷 卷末에 ‘唐 高宗 永徽 2년(651)에 바야흐로 疏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四分戒本은 바로 모든 행실을 통괄하는 관건…’으로 시작하는 저자 道宣이 撰한 ‘四分律含注戒本疏序’와 8卷 卷末 기록은 다음과 같다.

序：四分律含注戒本疏序/ 終南太一山沙門釋道宣撰

‘四分戒本者 斯乃統萬行之關鍵…將今旦西州來 既隱括詳後’

8卷 卷末：余以輕生筵筵正法…至永徽二年(651)九月十九日 方爲疏訖
粗得開其大務決事行用頗有準承余今暮年旦夕爲命故以
歷之亦絕筆有據耳

4.2 『佛制比丘六物圖』

天理大 소장본, 不分卷 1冊

이 책은 錢唐 靈芝寺律師인 元照가 지은 것으로 不分卷 1冊의 木板本이며, 일본 室町初期인 15세기경에 刊行한 南禪寺 眞乘院版이다. 장정은 線裝(4針)의

5) 『四分律比丘含注戒本』은 貞觀 4년(630)에 지었고, 貞觀 8년(634)에는 『四分律行事鈔』를 重修한 것으로 되어 있고, 永徽 2년(651)에는 『四分律比丘含注戒本疏』를 重修,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 8권을 찬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임경미(원영), “도선율사와 율종계보에 대한 논의,” 『淨土學研究』 第13輯(2010). 참고).

康熙綴이며, 행자수는 7행 17字, 책의 크기는 27.8×21.3cm이다. 책의 저자 사항에
 ‘大宋元豐三年夏 首餘杭沙門 元照(錢唐 灵芝寺律師, 字湛然 餘杭唐氏子)
 於天宮院出’로 되어 있고, 이 책의 卷末 面紙墨書의 기록에 일본 寬元 4년(1246)
 에 開板한 것에 관하여 道玄이 쓴 글이 있으며, 또한 南禪寺 眞乘院版의 『比丘六
 物圖』가 大正 12년(1923)에 消素되었다는 것이 面紙內 墨書기록에 보인다.

- ① 面紙內 墨書：比丘六物圖/ 南禪寺眞乘院版/ 大正十二年四月消素了
- ② 여백지 내 별지：五, 佛制比丘文物圖, 一卷 一册 [室町初期刊]
- ③ 卷末誌：此圖印版 稍歎湮 仍爲弘通重命工/
 壽良梓夫以本覺理性 雖味靈鑑於群/
 凡嚴制威儀要耀餘光於末運庶受遺/
 寄永垂無窮 弟子子珍謹誌/ 板在南禪眞乘院
- ④ 卷末面紙墨書：大宗靈芝律師力扶昆尼大部之外 更有此圖之作文簡義
 豐免披廣文之勞/ 矣吾不可弃法師不遠万里入宋眼其遺風
 飯朝豈忘流通常以斯文授人故/ 日之[助]有如法衣鉢而行者
 道玄幸稟末派輒思弘宣捨長財募同袍命工開板卽/
 施泉涌律肆永傳永代聊 助僧宗少 報祖德耳/
 尙寬元四年(1246)十月初一日 遇泉涌小比丘道玄 謹題

4.3 『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

天理大 소장본, 不分卷 1册

이 책은 終南山沙門 道宣이 저술한 것으로 不分卷 1册의 木活字本이다. 1604년
 일본 下村生藏에서 刊行한 것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책의 크기는 28.0×21.2cm
 이다. 包匣裝의 題簽墨書 기록을 보면 愛宕山版의 『新學比丘行護律儀』는 慶長
 9년(1604)에 古活字로 간행한 판본으로 明忍上人이 소중히 간직하던 手澤本임
 을 알 수 있다.

序文의 말미에 新學에 아울러 序를 짓는다고 하고 그 아래에 ‘行相法이 모두
 465條인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다’며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니, 11條로
 구성된 入寺法 第一에서 30條로 구성된 入聚落法 第二十三까지이다. 卷末기록
 을 살펴보면 우리 祖宗이신 南山法師께서 大慈悲로서 染에 빠진 무리들이 창성

함을 개탄하여 方便門을 열어 大小三藏을 纂集함에 격언은 별도로 하나의 편목을 만들어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라고 하셨다는 南宋 高宗 紹興 12년(1142)에 思溪 瞻雲庵에서 쓴 글이 있고, 일본 北京 東山 泉涌寺住持가 南山宗敎比丘인 思允에게 전하여 판에 새기도록 명하였다는 일본 文永 10년의 기록도 보인다.

包匣裝(題簽墨書) : 新學比丘行護律儀/ 愛宕山版/ 慶長九年(1604)刊 古活字版/
明忍上人 手澤本
序 : 觀夫創入道門…凡諸行條件錄之於後用光 新學并題序云
行相法都四百六十五條右下具明
卷末 [誌] : 吾祖南山以大慈悲開方便門慨乎初創染之徒纂集大小三藏
格言別爲一編目曰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庶使…後世聞奉持隆乎法有耳
紹興十二載壬戌(1142)春日於思溪瞻雲庵題北京東山泉涌寺住持傳南山
宗敎比丘/ 思允命工鏤板文永十年癸酉(1273)八月八日/
謹誌 料理配字知客比丘 靜海 右教誡儀簡牘磨減字畫殘殃或烏而焉/
或焉而馬故勵志投小財命工令活板併/ 爲正法 久住善願圓滿耳/
慶長九年(1604)甲辰應鐘上旬/ 城西歡喜山寶珠院沙門 幸朝/ 下村生藏刊之
卷末墨書 : 到愛宕山寶珠院之時感得之/ 明忍

5. 맺음말

이 글은 2015년 한·중·일에 소재하고 있는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교장 문헌을 중심으로 서지 조사된 총 110건의 86종 가운데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총 61건에 대한 서지적 조사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註釋書별로 살펴보면 經書 주석서는 13종, 論書 주석서는 16종, 律書 주석서는 3종으로 구분되며, 目錄類인 『新編諸宗敎藏總錄』卷2, 3인 1종이 있다.

둘째,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교장의 간행 및 인출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平安朝(794~1185) 1건, 11c 1건, 12c 2건, 13~15c 각 1건, 16c 2건, 17c 28건, 18c 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19c로 추정되는 1건, 20c초로 추정되는 2건과 15c板의 後印으로 추정되는 1건이 있으며, 간행연도 未詳 9건으로 구분된다.

셋째, 간행 版本別로 살펴보면 木板本 46건, 筆寫本 11건, 木活字本 4건이 있다. 목판본에는 論書의 주석서 중 하나인 春日版 『成喩識論了義燈』 卷2도 1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교장 문헌의 서지 조사를 토대로 교장의 經·律·論書의 註釋書를 크게 유형별로 나누고 각 교장 문헌별로 형태사항과 서지 분석의 결과를 통해 국내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의 교장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자료와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6.
- 高峯了州 著. 張戒環 譯. 『華嚴思想史』. 서울: 保林社, 1988.
- 高翊晉.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서울: 民族社, 1987.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古代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씨아이알, 2010.
- 김상현 외. 불교사학회 편.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민족사, 1988.
- 김상현. 『(교감번역) 화엄경문답』. 서울: 씨아이알, 2013.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大蓮 李永子博士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譯.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서울: 佛地社, 1997.
- 大屋徳城. 『佛敎古板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8.
- 박용진. 『의천 ;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佛敎史學會 編.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 서울: 民族社, 1989.
- 서정형. 『元曉 金剛三昧經論』.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 이근명 외 편.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1·2. 서울: 신서원, 2010.

- 장동익. 『송대려사자료집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經書院, 1982.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 최병현 외. 『한국불교사 연구 입문』 상·하. 파주: 지식산업사, 2013.
- 竺沙雅章. 『宋元佛敎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 키무라 키요타카 저. 章輝玉 옮김. 『中國佛敎思想史』. 서울: 民族社, 1989.
- 韓鍾萬. 『韓國佛敎思想의 展開』. 서울: 民族社, 1998.
-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4.
-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刊行委員會 역.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 韓國佛敎史學論集』. 서울: 民族社, 1989.

[논문]

- 김영미. “11세기 후반 - 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교류.” 『역사와 현실』 43(2002).
- 朴鎔辰.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中學研究』 第82號(2006).
- 석길암. “송에 대한 고려의 불전 공여와 그 의도.” 『한국사상사학』 제40집(2012. 4).
- 오용섭. “11-12세기 교장류 불서의 한중일 교류.” 『石堂論叢』 제58집(2014).
- 이중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제21호(2008).
- 임경미(원영). “도선율사와 율종계보에 대한 논의.” 『淨土學研究』 第13輯 (2010).
- 張東翼. “佛典의 流通을 통해 본 高麗時代의 韓·日關係.” 『石堂論叢』 제58집 (2014).
- 蔡澤洙. “義湘의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988.
- 한미경. “고려와 북송의 서적 교류 연구.”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12).
- 黃仁奎. “高麗後期 教宗僧의 中國遊歷과 佛敎界의 動向.” 『불교연구』 제27호 (2007).